

자유, 권리를 강조하는 지금에 와서 《무엇을 해도 자기의 권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라는것은 사회의 규칙,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면 범죄로 되고 많은 사람의 이해를 얻을 수없습니다.

담배는 일본뿐만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는 여러 가지 병의 근원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실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이런 사실에 따라 일본에서도 일부 음식점, 버스, 전차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또는 특별한 담배금지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행동을 채취하는것은 사람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할수 있게끔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를 끊어주세요」라고 말해도 인차 끊을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사람의 사회이지, 자기의 사회가 아닌만큼 자기의권리만 강조하고 자기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영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권리이지만 이것을 함으로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한보한보 진보하는 전제조건이 아닙니까?

담배를 피워도 규정된 장소에서 피워야합니다. 미래를 위해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수있게끔 깨끗한 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